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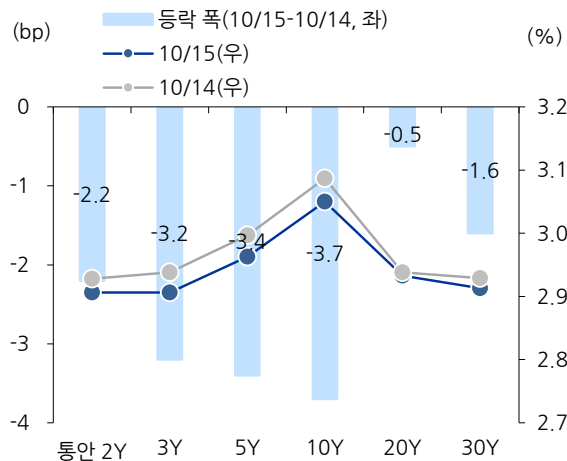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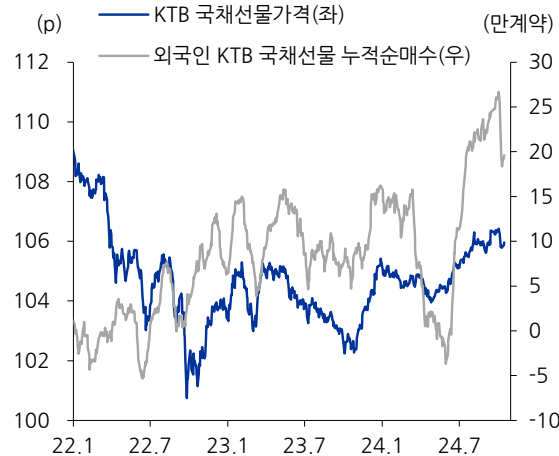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10/1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06%	-3.2	-5.4	-24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50%	-3.7	-5.1	-13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4.4	14.9	14.1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96	9.0	16.0	54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71	32.0	44.0	121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947%	-1.1	-5.0	-30.4
	미국채 10년물	4.035%	-6.6	0.7	15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8.8	14.4	3.1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224%	-5.2	-2.2	22.2
	호주국채 10년물	4.229%	-1.9	8.5	27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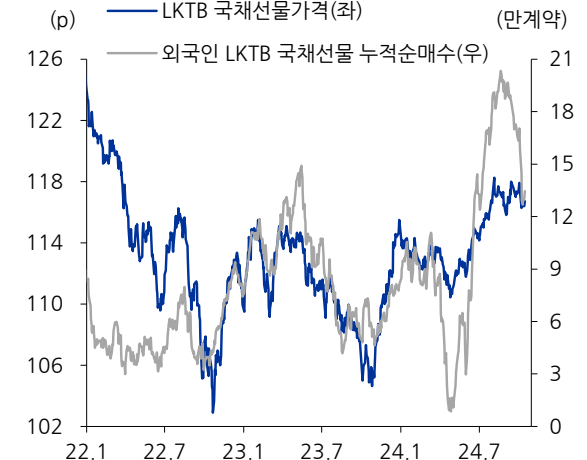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국고채, 강세 출발한 이후 오전 중 무난한 흐름 지속. 개장 전 발표된 수출입 물가, 국제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영향에 전월비 하락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침
- 외국인, 국채선물 순매수하며 강세 견인. 이외 특별한 재료 부재. 30년물은 내달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 주시하며 일부 변동성 노출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제조업 부진 및 유가 하락에 불 플래트닝
-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,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예상치 대폭 하회. 중동발 공급불안 안정되며 국제유가는 -4%대 급락, 인플레이 우려 완화
- 뉴욕 연은 소비자기대조사 상 가계재정 악화 흐름 확인된 점도 미국채 강세 요인으로 작용
-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미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될 시 연내 1~2번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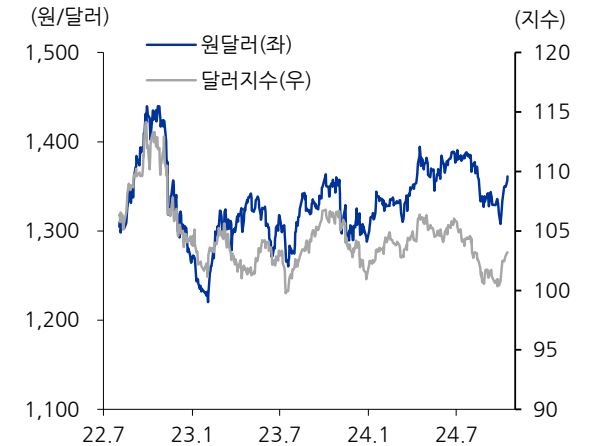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10/15일	1D	1W	YTD
원/달러	1,361.30	0.4%	1.1%	5.7%
달러지수	103.21	0.0%	0.7%	1.9%
달러/유로	1.089	-0.2%	-0.8%	-1.4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14	0.6%	0.9%	0.2%
엔/달러	149.21	-0.4%	0.7%	5.9%
달러/파운드	1.307	0.1%	-0.2%	2.7%
헤알/달러	5.65	1.0%	2.1%	16.4%
상품 WTI 근월물(\$)	70.58	-4.4%	-4.1%	-1.5%
금 현물(\$)	2,662.64	0.5%	1.6%	29.1%
구리 3개월물(\$)	9,520.00	-1.4%	-2.3%	11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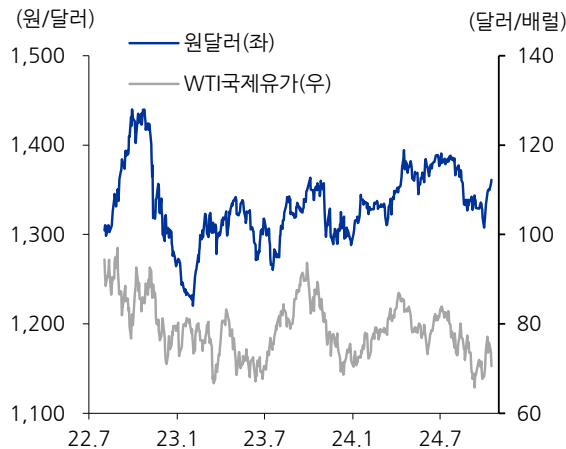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5.40원 상승한 1,361.30원에 마감. 야간 거래에서는 1,366.30원 마감.
- 간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. 달러-원은 전거래일 대비 +1.10원 상승 출발했지만, 개장 이후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.
- 위안화 약세에 연동된 영향도 있으나, 정오 무렵 북한 도발 문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. 국내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관세 우려 등에 상승.
- 간밤 ASML의 실적 가이드스가 크게 악화되면서 반도체 중심 위험 선호 심리가 큰 폭으로 후퇴.
- 뉴욕 연은 소비자 서베이에서 3개월 내 채무 연체를 전망하는 응답률이 4년 만의 최대치로 상승. 뉴욕 제조업 지수도 -11.9로 전월비 급락하면서 침체 우려 재점화.
- 채권금리는 지표 부진 및 저가 매수 심리에 하락했지만 달러는 소폭 상승. 트럼프의 "관세는 아름답다"라는 발언이 달러 강세 견인했고, 캐나다 인플레이 급락으로 캐나다 달러가 약세 보인 것도 달러 강세 영향.
-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이 핵 또는 석유시설이 아닐 것이라는 보도에 급락.